**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기계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100퍼센트 정확한게 과연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계는 정확히 짜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결과를 낸다고 보기엔 어렵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기계를 만드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짜인 시스템을 조작해서 결과값을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더 플랜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인가 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말도 안되는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인데,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투표용지를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012년도 대선 당시 초조하게 개표상황을 봤었는데 그 땐 성인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 했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난다. 하지만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모든 의견이 인간이 조작한, 적은 용량의 파일 몇 개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었다. 물론 약 삼천만표를 보다 정확하게 개표하기 위해, 좀더 빠르고 편리 하려고 분류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김어준 감독이 하는 말대로 수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서를 분류기로 바꾸는 이 간단한 방법이면 해킹이나 조작 프로그램으로 인한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었다. 물론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리 란 법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사람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가 너무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에 가만히 손을 놓고 볼수만은 없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말만 민주주의, 겉만 보이는 것만 민주주의인 말도 안되는 거짓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얼마 후에 있을 대선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라에 어수선한 지금 이런 난리통을 틈타 이런 말도 안되는 자작극이 벌어지지 않으리 만무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기계라고 무조건 의존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수정하는 것도 조작하는 것도 전부 사람이 하는일이다. 영화속에서 투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에서 문재인에 투표된 용지 300장을 기계에 넣었을 때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봤을 때 박근혜쪽으로 투표용지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2012년도의 대선은 정말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너무나 확실하게 들었으며 앞으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꼭두각시로 살아가야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직접하고 몇번씩 점검을 하고 확인용도로만 분류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

하나의 의문점은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혹은 개봉한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문을 가지고 제기를 하기도 하였을텐데 너무나 잠잠하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